

므리바의 물

말씀: 민 20:12-29

요절: 민 20:24

오늘 공부할 본문은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후의 일정입니다. 모세가 반석에게 말하라는 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반석에서 물을 풍성히 내셨지만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가데스에서 물을 낸 반석이 있는 곳을 ‘맛사와 므리바’라 불렀는데 맛사는 시험, 유혹이란 뜻이고 므리바는 다툼, 투쟁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맛사와 므리바’라 불린 곳은 두 곳입니다. 한 곳은 르비딤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고 불평했는데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출17:2)고 했는데 다툼과 시험의 장소란 뜻에서 맛사와 므리바란 이름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7:7절,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맛사와 므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출17:7).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주를 시험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르비딤의 반석에서 풍성히 물을 내주셨지만 세월이 흘러 이곳 가데스에서 다시 한 번 주를 시험하고 불평했고, 주께서 그들을 위해 물을 내셨습니다. 주님은 이곳을 또 한 번 ‘맛사와 므리바’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므리바의 물이라고 하면 르비딤(출17)과 가데스(민20) 두 곳 중 한곳입니다. 성경의 엄중한 명령 중 하나가 “**불평하지 말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10절, “또한 그들 중의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고전10:10). 주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불평했고 주를 시험하고, 다투었습니다. 야고보서 5:9절,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약5:9). 형제들은 서로에게 불평해도 정죄를 받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12).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12). 이 말씀에 따르면 모세와 아론은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 반석이 자기 물을 낼 것이라고 하셨는데(민20:8) 그들은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반석을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한 행위가 단지 그들의 혈기와 분노가 폭발해서 우발적인 사고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를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에 기인했다는 것을 주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12)란 말씀은 모세와 아론에게 뼈아픈 책망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평생토록 주의 집에 신실한 종이요, 주의 명령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분노에 휩싸여 주를 믿지 않고 자기 경험을 따라, 자기감정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으**

로”(12). 모세와 아론은 회중들 앞에서 주를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회중들을 위해 물을 내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고 “...너희 반역자들이,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민20:10)고 했습니다. 모세는 주를 거룩히 구별하는 대신 자기들을 드러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에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회중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씀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모세는 주님을 거룩히 구별하지 않고 자기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12).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곧 바로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죄로 인해 주께서 상속 유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의 직무는 광야에서 끝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은 모세의 사역이 아닙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는데 위대한 여정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미리암이 이곳에서 죽었고, 모세와 아론도 이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주의할 것은 가나안 땅을 구원으로 설정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구원 받지 못했다’고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으로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모세와 아론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가나안은 구원의 모형이 아닙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다투었고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셨으므로 이것은 므리바의 물이니라.”(13).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다투었지만 성경은 그들이 주와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한 불평은 주께 한 불평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를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죄에 대해 징계하심으로써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는 외모의 구별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징계와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외모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듯, 징계와 심판에도 외모를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열 명의 정탐꾼들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불신과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었듯이 모세와 아론 역시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내려진 징계와 심판은 모세와 아론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므리바의 물이니라.”(13). 므리바의 물이란 모세와 아론과 주와 다투었다는 의미에서 ‘다툼의 물’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므리바의 물이라 불리는 장소가 두 곳입니다. 르비딤에 있는 므리바의 물과 가데스에 있는 므리바의 물입니다. 민수기 27:14절, “신 사막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 하였느니라. 그것은 신 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므리바의 물이니라, 하시니라.”(민27:14). ‘므리바의 물’은 주께서 부르신 이름입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14).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에돔 땅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예들이 사는 거주지요, 그들 민족의 이름을 일컫습니다. 에돔의 땅은 가데스의 북동쪽에 있었고 사해의 남쪽, 홍해의 북동면 아카바 만에 있는 산악 지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동쪽으로 가 요르단을 건널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는 사자들을 에돔으로 보내 그 땅을 통과하게 해 줄 것을 구했습니다. 모세는 사자들에게 할 말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같이 말하기를,...”(14). 모세는 자기들이 에돔의 형제

란 사실을 말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각기 이스라엘과 에돔이 되었습니다. 이 둘은 모두 한 아버지를 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모세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함으로써 형제로서 호의를 구했습니다. 이 둘은 같은 혈통만 같은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같이 할례를 받았고, 둘 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 둘은 모두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이삭의 아들들로서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당신의 형제라고 한 것은 우리는 에돔의 적이 아니란 사실을 밝히고, 이 땅을 통과하더라도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14). 에돔은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형제였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서 파라오의 종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형제로서 동정과 연민을 가져줄 것과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란 말에는 에돔은 이집트처럼 우리를 대적하거나 핍박하는 등의 학대를 하는 가해자가 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이집트에 오랫동안 거하였으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괴롭게 하므로”(15). 모세는 에돔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야곱과 그 아들들은 요셉의 초청으로 모두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거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학대를 받았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런 역사는 에돔 왕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고 신음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오랫동안 거하였으며”란 말씀은 주의 말씀대로 사백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창15:13). 출애굽의 날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은 사백삼십 년이었더라. 사백삼십 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 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출12:40,41). 이들이 이집트에 거한 기간은 430년이었고 고통을 받았던 기간은 400년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노역으로 괴롭게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매 그분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경계 맨 끝에 있는 도시 가데스에 있사오니”(16).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 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끈질긴 독립 운동, 무장 투쟁의 결과로 독립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가 갑자기 무너졌거나 외세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고, 주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23절,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출2:23). 출애굽은 주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전적으로 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모세가 에돔에게 이것을 알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과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가 아니라 참여자요, 돕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이란 믿음의 조상을 둔 형제로서 이스라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매...”(16)-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16)-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출2:24,25). 하나님은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성

도들의 고통에 찬 부르짖음과 신음소리, 길게 내쉬는 한숨 소리를 다 들으십시오. 언제나 주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한 천사를 보내사...”(16). 여기서 한 천사는 ‘주의 천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의 천사”는 성육신 하기 이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낸 천사인 데 가브리엘이나 미가엘과 같은 천사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주께서 직접 ‘천사’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4:19절,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출14:19).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는 주 예수님입니다. 출애굽기 23:20절,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게 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출23:20). 여기서 주의 천사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23:23절, “내 [천사]가 네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로 데리고 들어가고 내가 그들을 끊어 버리리니”(출23:23). 여기서 ‘내 천사’로 언급된 천사 역시 주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출애굽기 32:34절,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하시니라.”(출32:34).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이 천사의 정체는 정확히 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경은 천사 경배를 금지하고, 천사들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는 언제나 사람들의 경배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천사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주의 천사는 주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에돔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려 줌으로써 그들이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다시 16절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경계 맨 끝에 있는 도시 가데스에 있사오니”(16). 이스라엘이 진을 친 가데스는 에돔의 서쪽 경계이며, 사해의 남서쪽입니다. 이곳은 에돔 왕이 직접 관할하는 지역은 아니었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에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에돔의 국경 지역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고, 자신들의 현 위치를 알렸습니다.

17절입니다.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지역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우리가 왕의 큰길로만 가고 당신의 경계를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이다, 하였더니”(17). 모세는 에돔 왕에게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지역을 지나가게 하소서.”(17)라며 허락을 구했는데 에돔은 형제요, 정복해야 할 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며”(17)란 말은 일체의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60만이 넘는 대군이 에돔을 통과한다면 에돔 왕은 물적, 인적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뭔가 분쟁이나 충돌이라도 생긴다면 자기 땅 한 가운데 적의 군대를 불러들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돔 땅을 지나려면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약속 정도가 아니라 통행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정상적인 왕이라면 통행을 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왕의 큰길로만 가고 당신의 경계를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17)라고 약속했습니다. 에돔을 통과하면 모압입니다. 그 위에 암몬이 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의 형제들입니다. 에돔을 통과할 수 있다면 모압과 암몬도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왕의 큰길로만 가겠다고 했는데 이 길은 실크로드란 말과 같이 고유명사로 당시 상인들의 무역로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을 통과해서 아모리 족속에 이르는 길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륙의 나라들을 잇는 국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상업용, 군사용 목적으로 각 족속들이 만든 길

로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를 왕래하는 상인들이 사용했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회중이 에돔을 통과하려면 이 큰 길로 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길의 이름이 ‘**왕의 대로**’로 불린 것은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 길은 주의 재림의 행로입니다. 우리 주께서 오시면 왕의 대로를 따라 요르단을 건너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하십니다. 에돔 왕은 모세를 대적하며 길을 막았지만 그 날에 주 예수님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에돔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며 기름진 것과 어린양과 염소의 피와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매아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시느니라.”**(사34:6).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에돔은 주의 칼에 큰 살육을 당합니다. 이사야 63:1절,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는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사63:1). ***보스라-에돔의 수도. 재림하신 주 예수님은 에돔을 칼로 심판하십니다.**

18절입니다. **“에돔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대적할까 염려하노라, 하매”(18)**. 에돔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너는 내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18). 이들은 국경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에돔 왕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족, 군대가 자기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할 왕은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대적할까 염려하노라.”**(18)는 말은 만약 이스라엘이 이곳을 통과하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말입니다. 에돔 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였지만 전혀 형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큰길로 지나갈 것이며 나와 내 가족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내가 그 값을 드리리이다.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으나”(19)**. 이스라엘 자손은 에돔 왕에게 **“우리가 큰길로 지나갈 것이며”(19)**라고 할 때 큰길은 왕의 대로로 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내가 그 값을 드리리이다.”**(19). 이스라엘은 순례의 길 동안에 에돔에게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항상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갈 동안 아무에게 아무 빛도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빛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롬 13:8).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민폐를 끼치거나 남의 것을 값없이 이용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강탈하거나 도둑질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요즘 가장 듣기 민망한 소식들 중의 하나가 어느 교회 목사가 또는 집사들이 아니면 어떤 성도들이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취했다,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나 친지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 크리스천들에게 사기를 당할 때 훨씬 더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오랫동안 분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누군가의 물을 마셔도 그 값을 치르겠다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리이다.”**(19)는 말은 일체의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에돔 왕에게 이런 약속은 별 이득이 없는 제안입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그를 막으니라.”**(20). 에돔 왕은 모세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을 뿐 아니라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막았습니다. 사실 에돔 왕의 입장에서 모세의 제안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구실, 핑계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중국을 칠 터이니 길을 열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정명향도(征明嚮導), 가도입명(假途入明)이었습니다. 정명향도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테니 조선은 길잡이가 되어달라(토요토

미)는 것이고, 가도입명(통신사)은 명으로 가가는데 길을 빌려달라는 말입니다. 일본군이 동래성을 포위하고 한 말이 정명가도(征明假道)입니다. 에돔 왕이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막은 것은 일국(一國)의 왕으로서 당연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핍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광야의 용들을 위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였느니라.”(말1:2,3)고 말합니다. 세상 민족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 중의 하나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창12:3)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지금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에돔과 같이 이스라엘을 막고 대적합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반(反) 이스라엘 정책을 취합니다. 그런 민족, 나라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꿰어앉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화를 돌우리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니라.”(민24:9). 에돔 왕은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21절입니다. “에돔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자기 경계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키니라.”(21). 에돔이 길을 내주지 않자 이스라엘은 왕의 대로(大路)가 필요했지만 돌이켰습니다. 몇 번의 요구를 더 해 보고 이것을 빌미로 전쟁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쉽게 물러서 우회 길을 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일 땅을 에서에게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이와 같이 세일 산에 거하였는데 에서는 에돔이니라.”(창36:8). 하나님께서 형제의 유산, 상속을 범하거나 싸우는 것을 금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명기 2:4,5절에 “또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세일에 거하는 너희 형제 곧 에서 자손의 지경을 지나갈 터인즉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고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결코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소유로 주었느니라.”(신2:4,5)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에돔에게서 돌이켰습니다.

22,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이동하여 호르 산에 이르렀더니 {주}께서 에돔 땅의 지경 옆의 호르 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22,23).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에서 이동한 곳은 호르 산입니다. 이곳은 가데스 북동쪽 약 24km 지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께서 에돔 땅의 지경 옆의 호르 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론의 죽음과 대제사장 직무를 엘르아살에게 물려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너희가 트리바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였으므로 아론은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24). 주께서 아론과 모세가 트리바의 물에서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론은 이곳에서 죽습니다. “아론은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란 표현은 아론의 몸이 아니라 죽어서 혼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아론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 산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25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 산에 올라가”(25). 주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 산에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성막 앞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아들에게 위임하고 아론의 은퇴식을 성대하게 행하지 않고, 호르 산에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산에서 언약을 주셨고,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고, 온 백성이 산을 보고 맹세를 하도록 하셨으며, 성전도 평지가 아닌 산 위에 세우게 하

셨습니다. 성경에는 유난히 산이 많이 언급되어 있기에 시리아 왕의 신하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의 신들은 산의 신들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평야에서 그들과 싸우게 하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왕상20:23). 시리아 사람들이 주 하나님을 ‘산의 신들’이라고 했는데 이는 주 하나님과 그분의 일이 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르 산은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죽은 곳입니다.

26절입니다.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하시니라.”(26). 하나님께서 아론의 의복들을 벗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말에서 ‘옷 벗었다, 옷 벗는다’는 말은 회사에서 잘리거나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라는 것은 대제사장 직분에서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엘르아살에게 그의 옷을 입히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무가 아들에게 계승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을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이어 제 2대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아론은 거기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26). 주께서 아론이 언제, 어디서 죽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생일을 알 듯, 자신의 죽는 날도 알았습니다.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진다는 말은 그의 몸이 아니라 혼이 지하 낙원 즉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의인들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혼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악인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아론은 호르 산에서 죽어 묻혔지만 그의 혼은 즉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죽으면 혼은 그 즉시 셋째 하늘로 가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그들이 온 회중의 눈앞에서 호르 산에 오르니라.”(27). 모세는 주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 산에 올랐습니다. 대제사장이란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회중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민족적, 공적 사역입니다. 전에 백성들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 도전하고 반역을 꾀한 적이 있었는데 아론의 죽음과 새로운 대제사장의 임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28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거기서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28). 모세가 아론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이로써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마쳤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벗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아론이 거기서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으니라.”(28). 아론은 평소 당연히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아론이 죽듯 엘르아살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죽지 않습니다.

29절입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의 온 집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아론을 위해 삼십 일 동안 애곡하였더라.”(29). 아론의 죽음에 대해 이스라엘의 온 집이 삼십 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미리암의 죽음과 달리 아론의 죽음은 이스라엘 국장(國葬)으로 엄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도 30일간 애곡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애곡했습니다. 예서는 아버지 이삭이 곧 죽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창27:41)고 했습니다. “애곡할 날들”이 무슨 뜻인지 성경이 스스로 말합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는 칠십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의 온 집은 그동안 아론을 대적해서 자주 많이 불평했지만 그의 죽음을 보았을 때 함께 울었습니다.